

# 전망과 은신처 이론을 적용한 치유적 커뮤니티 공간 연구 -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심리치유를 위한 건축적 방안 -

## A Study on Healing Community Space Applied Prospect and Refuge Theory - Architectural Suggestions for Psychological Healing amid the COVID-19 Pandemic Era -

김 순 응\*  
Kim, Soonwung

조 선 희\*\*  
Cho, Sunhee

### Abstract

We have lived in a highly dense environment since the rapid urbanization of the industrial age. The COVID-19 pandemic has increased the need for individual spaces for telecommuting or non-face-to-face classes in residential spaces. In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where there are many housing types for one-person, the sense of social isolation is increasing more than ever due to COVID-19. This study explored problems in residential spaces and the solutions to relieve the sense of social isolation in this pandemic era.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urtyard housing in France was examined as an example. Based on the case study, the meaning of threshold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was reinterpre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ling community space in this pandemic era were proposed by applying prospect and refuge theory.

주요어 : 코로나-19, 전망과 은신처, 경계, 커뮤니티 공간, 중정형 집합주택

Keywords : COVID-19, Prospect and Refuge, Threshold, Community Space, Courtyard Housing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화 시대의 급격한 도시화 이후 우리는 고도로 밀집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절대적 필요성을 요구하며 사람 간에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프로세믹한 본능을 극대화하고 있다. 직장과 거주공간이 분리된 직주분리형 도시계획이 근대적 삶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 직주근접형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나 레저, 문화 활동 또한 집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감염율이 높은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소도시나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아파트는 공용공간이 복도와 주차장과 같은 기능적 공간에 대체되거나 극소화되어 이웃 간 교류가 매우 부족하다. 1인 가구 중심의 주거형태가 많은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감이 그 어느 때 보다 증가하는 현실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을 대면하는 일상을 잃어버리고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그리고 사

회적 고립감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는 주거 형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즈음에, 본 연구는 이에 필요한 주거공간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별적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극대화된 이 시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기존과 다른 방식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합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을 모색하기 위해 서구 중정형 집합주택 발달과정을 사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토대로, 현대 건축물들에 나타난 내·외부 경계를 새롭게 해석하고 전망과 은신처 이론을 접목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요구되는 치유적 커뮤니티 공간 특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증가하는 고립감과 우울감에 대해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였다.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Google Scholar에서 COVID-19, stress, isolation, depression을 주요어로 해서 문헌을 검색하였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보도된 국내외 신문기사도 함께 검색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고립감과 스트레스, 우울감을 살펴보았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프로세믹스 이론<sup>1)</sup>을 토대로 커

\* 국립목포대학교 건축학과 초빙교수, 예술사학 박사

\*\*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간호학 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chosunhy@gmail.com, scho@mokpo.ac.kr)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동명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proxemics ; 근접학 이론이라고도 번역하며, 이 개념의 창시자인 에드워드 홀(Hall E.)은 사람 간의 거리에 따라서, 친밀한 거리(intimate distance), 개인적인 거리(personal distance), 사회적인 거리(social distance), 공적인 거리(public distance)로 나눈다.

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바나 가설에 근거한 전망과 은신처 이론을 고찰하였다.

셋째, 중정형 커뮤니티 공간의 발달과정을 프랑스의 집합주택 사례로 살펴보았다.

넷째, 현대건축의 내·외부 경계에서 보이는 공간적, 재료적 특성과 전망과 은신처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요구되는 치유적 커뮤니티 공간을 제안하였다.

## 2. 이론적 고찰

### 2.1 코로나-19 대유행과 정신건강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외부와 격리된 개인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고립감, 소외감, 죄책감, 낙인에 대한 불안, 직장이나 학업 문제, 불면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격리 상황으로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당하는 경험은 자기 조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sup>2)</sup>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을 대면하는 일상을 잃어버리고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sup>3)</sup>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8%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0%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면장애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영국에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우울 증상이 작년 대비 두 배 증가하였다. 응답자의 20%가 우울증 진단기준에 부합했는데, 작년 같은 시기의 10%보다 두 배 많은 수치다.<sup>4)</sup> 미국의 경우 1,4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팬데믹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해고 등의 스트레스가 관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5)</sup> 2017년부터 보고된 우울증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유병률이 2017년 3.44%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5%로 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sup>6)</sup>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와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은 점점 분노로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방역에 비협조적인 일부 시민들에 대한 분노와 감염공포 등의 심리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 스트레스가 폭력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코로나 레드’ 상황으로 발전

할 가능성도 있다.<sup>7)</sup> 북미에서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코로나 레드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실직 상태가 계속되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마약 과다 사용에 따른 사망자도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다.<sup>8)</sup>

이처럼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밀집형 주거공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전문가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2020년 6월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역사적으로 감염병 창궐 이후 도시 공간이 변화해 왔으며, 현재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우리의 주거공간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 연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집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가 생겼음을 지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야외 테라스 주택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sup>9)</sup>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에 다양한 물리적,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특히 주거공간과 이웃 관계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sup>10)</sup> 그중에서도 사생활 보호와 공간 분리 관련 요인이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다.<sup>11)</sup>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어떠한 주거공간 특성이 사람들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

### 2.2 프로세믹스 이론 및 커뮤니티 공간의 의미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집단 속에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과 교류하면서 그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사회적 관계라고 한다. 사회적 관계를 공간적 측면에 대해 개념적 틀을 제공한 사람이 인류학자 홀(Hall E.)이다. 그는 저서 ‘숨겨진 차원’에서 문화에 의해 형성된 인간의 경험 구조를 연구하여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정립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의 한 체계인 ‘프로세믹스’ 이론은 거리에 따른 인간의 행동과 공간 속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sup>12)</sup>

커뮤니티는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하며<sup>13)</sup>, 그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공동의 장소를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커뮤니티

7) 허미담, 화가 나 견딜 수 없다" '코로나 블루' 이어 '코로나 레드' 주의보. 아시아경제, 2020.

8) 김용호, 문지마 칼부림...임계치 넘어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로 시사저널, 2020.

9) 김준래, “코로나-19 사태는 공간 변화의 신호탄”. 사이언스타임즈, 2020.

10) Evans, G. W., Wells, N. M., & Moch, A., Housing and mental health: a review of the evidence and a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critique. Journal of Social Issues, 59(3), 2003, pp.475-500.

11) 김봉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003, pp.215-221.

12) Hall E., 최효선 역, 숨겨진 차원: 공간의 인류학, 한길사, 서울, 2002.

13) Hillery, G.,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955, pp.111-123.

2) 이은환, 코로나-19시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진단, 5(1), 2020, pp.1-25.

3) 이은환, 코로나-19시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진단, 5(1), 2020, pp.1-25.

4) Schraer R., Depression double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BBC News. Published 18 August, 2020.

5) Ettman, C. K. et al., Prevalence of depression symptoms in US adult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AMA network open, 3(9), 2020, e2019686.

6) Bueno-Notivol et al., Prevalence of depression during the COVID-19 outbreak: a meta-analysis of community-based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21(1), 2020, pp.1-11.

공간은 도시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공간만 따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 도시공간이 공공성을 가지는 이유는 도시공간이 다른 많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성은 주거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도시공간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시설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사회적 관계는 커뮤니티 센터보다는 길거리나 오픈스페이스 등의 비(非)단위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주거 내 보행공간은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지각하며 사회적 교류가 발생하는 장소이자 공동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곳이다.<sup>14)</sup> 하지만 요즘과 같이 주거공간 내에서의 생활이 극대화되어가는 시기에 주거공간은 오히려 소외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고층형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써 접지성이 약화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한 녹지공간보다는 실내의 커뮤니티 시설이 강조되었다. 거주민들은 이웃간의 불편한 만남을 회피하기 위하여 운동시설과 같은 여가활동 시설을 단지 외부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커뮤니티 시설의 한계가 나타난다.<sup>15)</sup>

이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형 집합주택들이 대두되고 있다. 블록형 집합주택의 특성은 중정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저층고밀화가 용이하고, 주거동과 가로공간이 연계됨으로써 시각적 개방감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특히 내부 중정은 주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효율성이 매우 높아서 기존 아파트 단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sup>16)</sup>

### 2.3 바이오필릭 디자인 및 전망과 은신처 이론

#### (1) 바이오필릭 디자인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마을 공동체의 개념이 거의 사라진 현시점에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커뮤니티 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연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하루의 90% 이상을 도시와 건축 실내공간에서 보내는 현대인들에게는 자연과 연계하려는 타고난 본능이 있다. 생물학자 윌슨(Wilson E.)이 주창한 바이오필리아(biophilia: 생명사랑)와 디자인의 합성어인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이러한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을 향한 본능을 기초로 하고 있다.<sup>17)</sup> 자연환경에서 진화한 인간의 본능은 유기체적인 질서와 생태계로 결합된 환경을 선호하고 그 본능에 근거하여 자연적 요소가 반영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이나 자연적 요소가 반영된 공간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sup>18)</sup> 산림학자 켈러트(Kellert S.)의 이론에 의하면,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6개 범주와 70여 가지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전망과 은신처 개념은 초원에서의 넓고 밝은 외부공간과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갖을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는 디자인 원리를 말한다.

#### (2) 전망과 은신처 이론

진화심리학자 오리엔스(Orians G.)의 사바나 가설에 따르면, 인류는 선천적으로 선사시대 조상들이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온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을 선호하도록 진화했다고 한다. 우리가 좌우대칭의 정원, 사바나와 유사한 환경, 메마르지 않고 넓은 공간, 주변에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고 어느 정도 질서가 있으면서도 기하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환경을 선호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sup>19)</sup> 지리학자 애플턴(Appleton J.)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환경을 사바나 가설에 근거하여 '전망과 은신처' 개념<Fig. 1>으로 설명하였다. 그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외부 위험을 감시하고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하는 환경을 선호한다고 한다.<sup>20)</sup>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망과 은신처라는 상호보완적인 생물학적 속성은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학습되었다는 것이다.

건축가 힐드브렌드(Hildebrand G.)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Fig. 2> 분석에서 그러한 예를 설명하고 있다.<sup>21)</sup> 이 주택은 시냇물 위로 수많은 내부 및 외부 전망을 볼 수 있는 캔틸레버로 되어있어 은신처로서의 집의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 다른 사례로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 파크에 있는 Edwin Cheney 주택<Fig. 3>은 벽난로가 집의 가장 중앙에 낮은 천장 아래에 있다. 이곳은 작고 낮고 어둡고 따뜻하고 아늑한 내부 은신처의 역할을 한다. 반면에 거실은 벽난로 구역의 천장보다 훨씬 밝고 높다. 이 공간은 식당과 도서관으로 이어진다. 개인 주거 내에서의 두 가지 상반된 공간은 아늑한 보호처의 기능과 동시에 넓은 외부공간을 조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집합주택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집합주택의 중정은 도시와의 경계를 설정하고 단지 내 세대 간의 시선이 교차하는 곳이다. 시선은 전망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망성은 시각각에 의존하고 객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적 특성은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 사이의 거리를 전제로 한다. 사람들 사이의 거리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회적 거리가 필요하다. 적당한 사회적 거리는 보호적 감각으로서의 은신처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이나 재택근무 등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적 공간에서 보내는 코로나-19 시대에는 사회적 고립감이 커

14) 김명선, 문정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주거지 보행공간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7, p.3.  
15) 전명화 외 7명, 초고층 주거 건물 내 공용공간의 특성 및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5, p.181.  
16) 목정호, 정재용,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집합주택 설계-블록형 집합주택의 중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p.355.  
17) Kellert S. et al., Biophilic design: the theory, science and practice of bringing buildings to life. John Wiley & Sons, New Jersey, 2011.

18) 황지현, 이현수, 심리 치유를 위한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 연구-경회루의 전망과 은신처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 p.48.  
19) Wilson E., 안소연 역, 바이오필리아, 사이언스북스, 서울, 2010.  
20) Appleton, J, Prospects and Refuges Re-Visited. Landscape Journal, 3(2), 1984. pp.91-103.  
21) Kellert S. et al., Biophilic design: the theory, science and practice of bringing buildings to life. John Wiley & Sons, New Jersey, 2011.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호받는 기능으로서의 은신처성과 전망성이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야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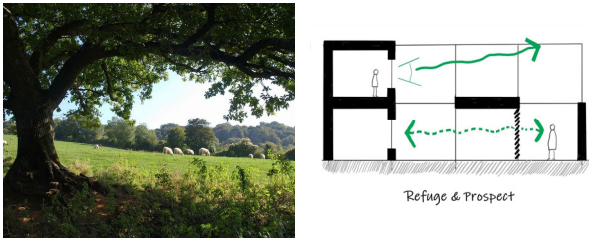


Fig. 1. Prospect & refuge theory



Fig. 2. Fallingwater, Frank Lloyd Wright,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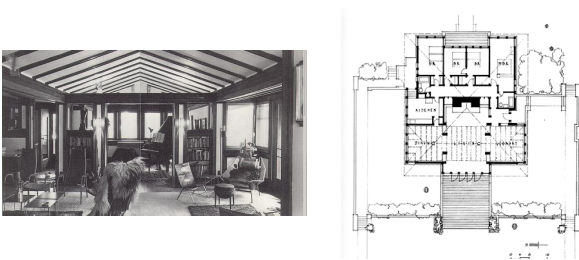


Fig. 3. Edwin Cheney house, Frank Lloyd Wright, 1903

### 3. 중정형 커뮤니티 공간의 발달과정

#### 3.1 오스만 집합주택

서양에서는 중정이 일종의 작업공간으로서의 서비스 마당 역할을 하였다가 18세기 말과 19세기에, 산업화로 인한 도시형 집합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중정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엽, 파리의 블록형 집합주택<Fig. 4>는 오스만의 파리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블록은 도로에 면해서 공공의 영역과 만나는 경계를 형성하며 도시와의 관계를 맺는다. 한편, 이 경계로 인해 블록의 내부에 시각적, 물리적으로 차단된 반(半)공적인 성격의 중정이 형성된다.<sup>22)</sup> 이 중정 공간은 블록 단위의 각 세대 간에 커뮤니티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다. 특히, 오스만 집합주택의 거주민은 층별로 귀족, 부르주아, 도시상공인, 장인, 노동자나 예술가 등 다양한 계층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신분 계급이 다른 세대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 안에 다양성을 모아 집약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프랑스인의 성격이

22) 조주현, 개방과 폐쇄의 관점에서 본 파리의 블록형 도시주거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30, 2010, p.76.

주거 형식에 투영된 것이다.<sup>23)</sup> 한편, 산업화 이후 도시로 유입된 밀집인구와 불량한 거주환경이 합쳐지면서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었다. 결핵의 주원인으로 채광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쇄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었다.<sup>24)</sup>



Fig. 4. Haussmannien Housing

#### 3.2 베르시 집합주택

20세기에 들어서 근대건축 운동은 집합주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량 생산의 사회적 요구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위생 문제로 인하여 도시주거에 대한 사회적·건축적 변혁이 일어났다. 인구 과밀화로 인한 밀집된 도시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가 절실히 필요했고 단혀있는 블록형 주거형태가 문제로 지목되었다. 이로 인해 1920년 이후의 근대주의 집합주택 계획은 기존의 가로단위의 블록형보다는 독립 형태의 건축계획을 중시했다.

이 시기의 집합주거 계획은 도시 공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단지 내의 커뮤니티 형성도 간과되었다.<sup>25)</sup> 단위 주거 계획은 전통 도시의 특징인 광장, 가로, 중정 등의 공간적 위계가 없었고, 기존 도시경관이 담고 있는 맥락적 질서가 간과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70년대부터는 전통 도시 구조를 유지하면서 저층 고밀도 유형의 다양한 건축적 제안들이 나왔다. 그중 베르시 집합주택<Fig. 5>는 전통적인 집합주거 유형인 블록형과 근대건축의 단위주거 방식을 적절히 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디근(디)자형 블록을 기본으로 하면서 한쪽 면을 열고 공용 발코니와 계단실 등을 배치하여 연속성과 개방성을 모두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블록 내부에 햇빛이 충분히 유입되고 개방감이 증가하였으며, 커뮤니티 형성의 측면에서 향상된 환경이 구축되었다.

23) 이선정, 도시공동주거 공간과 인문학적 요소의 관계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사회문화적 관점으로의 파리 아파트 지속가능성 고찰,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3(4), 2018, p.112.

24) 1904년 결핵 등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파리에서 12,000여 명에 달하고 프랑스 전체에서는 15 여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주현, 이선정, 도시공동주거 공간과 인문학적 요소의 관계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사회문화적 관점으로의 파리 아파트 지속가능성 고찰,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3(4), 2018, p.77.

25) 정재현, 도시 맥락적 관점에서 분석한 레 오프톱 집합주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6), 2000, p.169.





Fig. 5. Housing in Bercy, Jean-Pierre Buffi, 1987

### 3.3 제 3세대 도시

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C. de Portzamparc)은 도시 형태를 시대적으로 분류하여 세 가지 모델로 제시하였다. 제 1세대 도시는 전통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폐쇄된 블록형 도시 구조이며, 도로와 건물과의 경계로 인하여 공격 공간과 사적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제 2세대 도시는 근대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의미한다. 기존 전통 도시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적인 독자성이 강조되나 도시 공공 공간과의 관계는 미약한 형태이다. 제 3세대 도시는 우리가 현재 사는 혼재된 도시 구조를 말한다.

포잠박의 경험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제안된 제 3세대 도시론<Fig. 6>은 기존 도시와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는 “건축적인 물체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 공간을 건축하는 것”<sup>26)</sup>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늘로 열린 큰 녹지공간을 중심개념으로 도시를 형성하고자 했다. 공원과 주거공간 사이에 반(半)개폐 형식의 갤러리를 둬으로써 스케일과 성격이 다른 두 공간 사이에 전이 공간을 만들었으며, 주거단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길을 만들어 도시의 연속성을 부여하였다. 이 방식은 19세기 파리 건축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파사주<sup>27)</sup><Fig. 7>과 같은 기능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한층 더 나아가, 가로(街路)는 블록의 중정과 시각적으로 연결되고 단지의 중심적인 공간인 광장과 한면이 접하고 있어 블록 내부를 개방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중앙광장은 가로(街路)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열린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게 한다.

중정형 집합주택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단위로서의 특성이 있으며, 그 구조 안에서 이웃과 교류하며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다. 또한, 중정형 집합주택은 고도의 집합화에 대응하면서도 단위주택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해야 한다는 도시주택의 기본적 존재 방식이 함축되어 있다.<sup>28)</sup> 이렇듯 타인과 함께 존재함과 개인의 영역을 침범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중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집합주택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

26) 한지형,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의 “제3세대 도시” 이론과 “열린 블록”의 체계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8), 2004, p.62.

27) passage couvert ; 파리의 독특한 건축형식인 파사주는 몇 개의 건물을 이어 만든 통로로서 유리나 철골로 된 지붕과 대리석 바닥으로 만들어진 건축이다. 화려한 상점과 노천카페들이 즐비한 실내와 거리의 경계를 없앤 장소적 특성이 있다. 독일철학자 벤야민은 파사주를 19세기 자본주의적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대표적 건축물로서 산책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장소이자 도시의 저편에 사라지는 폐허라고 표현했다.

28) 손세관, 중정형 도시주택의 공간구조에 관한 문화적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11), 1994, p.16.



Fig. 6. Les Hautes Formes, Christian de Portzamparc,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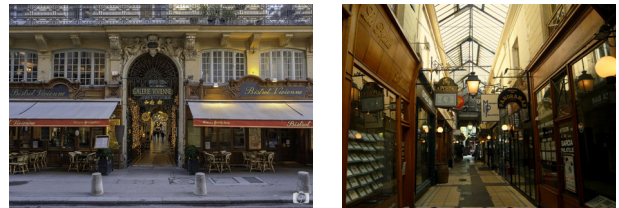


Fig. 7. Passage couvert

## 4. 현대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건축적 방안

### 4.1 ‘모호한’ 경계공간

현대건축에서는 타자적 경계공간이 건축공간의 이분법적 내·외부를 새롭게 보고 있다.<sup>29)</sup> 경계는 어떤 것이 끝나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관찰자는 인식적 시선을 통해 내·외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 즉, 관찰자가 내·외부를 동시에 드러내는 경계공간을 바라보고 인식함으로써 ‘모호한 경계’, ‘변화하는 경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내·외부의 경계가 폐쇄적이지 않고 열리면서 닫힌 모호한 공간이 된다.

파리의 카르티에 재단 건물<Fig. 8>은 투명한 유리의 이중 외피 구조가 특징이다. 이 구조는 시시각각 시간이나 자연 또는 도시의 환경에 따라 경계를 변화시키고 내·외부가 고정된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소통의 관계를 맺도록 한다. 변화하는 경계가 갖는 불확정성은 무한의 속성을 포함하여 내·외부 사이에 일어나는 소통의 관계를 지속시킨다.

파사주는 관찰자의 시선에 의해 내·외부가 끊임없이 교차됨으로 해서 내·외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공간이다. 시선의 교류는 파사주를 하나의 경계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만든다. 내·외부 사이에 인식에 의한 경계를 만들어, 내·외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각적 경계에서 벗어나 관찰자의 인식에 의한 내·외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즉, 시각적 경계는 해체하고 인식적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사주적인 중정은 관습적 내·외부 관계에서 벗어나 거주민들에게 새로운 인식적 경계를 강화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9) 최순섭, 김광현, 현대건축의 타자적 경계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4), 2006, p.179.

## 4.2 시각적 외피 및 반투명성

현대건축에 흔히 쓰이는 유리 재료는 시선을 확장시키고 건물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건축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특징이 있다. 시각적 경계의 해체는 건물과 자연의 경계를 해체하고 주체와 대상의 위치가 전환되는 공간적 체험을 통하여 시선과 응시를 교차시킨다. 인간의 시각체계는 여타 동물들과 구별되는 시각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각적 지향성을 시선이라고 한다.<sup>30)</sup> 이와 반대로, 응시는 ‘보여짐’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시선이 역방향으로 작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보다’라고 하는 행위의 능동과 피동의 양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반투명한 외피는 관찰자의 시선을 밖으로 발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찰자의 시선을 내부에 가두고 머무르게 한다.<sup>31)</sup> 이러한 유리 외피의 반투명성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조절하며 시각적인 시선과 응시의 조절 혹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데 활용된다.<sup>32)</sup>

일본의 기푸 아파트 <Fig. 9>는 개별공간과 중정 사이에 반투명한 벽을 설치하여 시각적 외피를 경계로 환원한다. 즉, 시각적 경계에 따른 내·외부의 분할 구도에서 벗어나 관찰자의 인식에 따라 내·외부의 소통 구도를 만든다.

카르티에 재단 건물의 이중 외피와 기푸 아파트의 반투명한 유리는 응시에 반응하는 스크린<sup>33)</sup> 역할을 한다. 이러한 외피의 특성은 외부의 시선을 가리기도 하고 내부자의 시선을 바깥으로 투과시킴으로써 주체의 시선을 응시로 전환한다. 봄과 보여짐의 관계로서 시선과 응시는 전망과 은신처 이론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대인에게 위협적 요소는 타자이자 외부의 응시에서 시작되고, 이 대상은 주체에게 돌려보내는 시선이다. 우리는 대상의 응시에 의해 ‘보여지는 존재’가 됨으로써 존재한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라캉(Lacan J.)은 이를 “나는 단 한 지점을 볼 뿐이지만, 나의 실존 속에서 나는 사망에서 응시되고 있다.”<sup>34)</sup>라고 했다. 주체가 자신의 시선에 앞서는 타자의 응시를 전체해야 존재할 수 있고, 오직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sup>35)</sup> 즉, 사람이 존재하기 위하여 타자에 의해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망이론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위협이라는 역설적 요소는 사회적 거리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요구되는 코로나-19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Fig. 8. Cartier Fondation for Contemporary Art, Jean Nouvel,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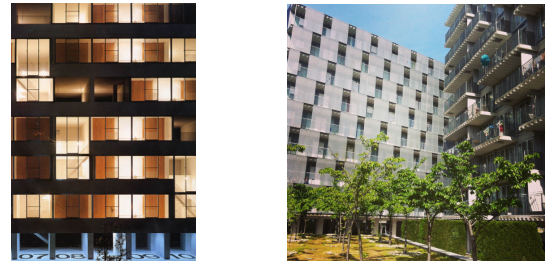


Fig. 9. Gifu Apartment, SANAA, 2000

## 4.3 프랙탈 중정

프랙탈 이론에 의하면, 자연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고 그 특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보이는 자연현상들, 예를 들어 구름의 무정형 패턴, 번개의 불규칙한 궤적, 가지를 뺀 나무, 고사리 잎의 가지치기 모양, 우주의 형태 등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자기닮음 구조를 하고 있는 프랙탈 기하학은 그 구조 속에 자기조직화의 메커니즘이 숨어있으며, 자기유사적 특성으로 인해 부분이 전체를 늘 내포하고 있다. 작은 부분들은 전체와 매우 흡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 전체를 만들기 위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모호하게 형성된 부분들이 갖는 관계성의 영역이며, 이러한 영역은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때 형성된다.<sup>36)</sup>

도시와 중정과 관계, 중정과 개별공간과의 관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숲의 경계가 멀어서 보면 불투명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나뭇잎 사이로 투과되어 보이는 것과 같다. 숲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불확실하고, 투명과 불투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난 작품 중 소우 후지모토(Sou Fujimoto)의 서펜타인 파빌리온<Fig. 10>이 있다. 단단한 철 파이프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전체는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투명과 불투명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개별 공간들이 중정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경계는 도시와 느슨하게 결합된 방식을 상상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동일한 건축가의 N주택<Fig. 11>은 두터운 구조체가 외부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도시와의 경계를 설정하고, 동시에 도시가 구조체로 스며드는 전이공간을 연출한다.

도시인들은 과도하게 인지되는 시각적 기호들(광고판, 차량

30) 김진모, 시선과 응시의 관계로 본 현대건축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17(5), 2008, p.4.

31) 김진모, 시선과 응시의 관계로 본 현대건축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17(5), 2008, p.10.

32) 이세영, 김수환, 소우 후지모토의 '사이건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 학회논문집, 60, 2017, p.178.

33) 라캉은 이러한 스크린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으로 가려진 실재계를 연결하는 응시의 통로라고 한다.

34) 자크 라캉, 자크 라캉 세미나 11권, 맹정현, 이수련 역, 새물결, 2008, p.114. 최원호, 무의식의 주체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17(9), 2014 재인용.

35) 정나영, 정은영, 에드워드 호퍼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 나타난 시선과 응시의 교차에 관한 소고, 한국기초조형학회논문집, 17(6), 2016, p.542.

36) 이세영, 김수환, 소우 후지모토의 '사이건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 학회논문집, 60, 2017, p.181.



의 불빛, 환경시설물)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 한마디로 도시경관은 긴장의 연속이다. 따라서, 주거공간은 스트레스를 이완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프랙탈 패턴은 사바나 가설을 근거로 하여 인간에게 진화적으로 친숙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프랙탈 공간형식은 고도로 자기조직화된 복잡성을 나타내며 인간 뇌의 병렬인지구조와 일치하는 특성으로 인간에게 긍정적 정서 반응과 선호의 감정을 지원하게 된다.<sup>37)</sup> 자연의 장면과 비슷한 수준의 프랙탈 차원의 디자인은 미적 기준을 제시하고 스트레스 감소 및 힐링의 효과가 있다.<sup>38)</sup> 프랙탈 패턴과 조형성을 통해 캐노피의 형태 등을 활용하여 중정 공간에서 신체를 이완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학자 오리엔즈는 사바나 나무의 네 가지 특성을 연구했다. 캐노피 모양, 캐노피 밀도, 나뭇가지 패턴, 줄기의 높이 등이 연구의 예이다. 사람들은 둥근 형태의 나무보다는 아프리카 사바나의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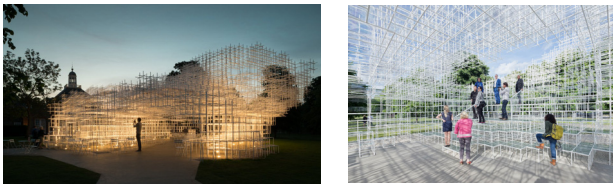


Fig. 10. Serpentine Pavilion, Sou Fujimoto, 2013



Fig. 11. N-House, Sou Fujimoto, 2011

## 5. 결론

근대 이후에 생겨난 직주분리형 주거형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직주결합 형태의 생활로 변화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공포로 사회적 만남은 급격히 줄어들고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주거공간의 변화를 통해 코로나-19로 드러난 주거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에 대한 공간적 해석을 시도하고 주거공간 내에서 치유적인 요소를 살펴보았다. 바이오필릭 디자인 특성 중 전망과 은신처 이론은 보호적 특성으로 인한 물리적 닫힘과 조망 원리에 의한 시각적 열림의 메커니즘으로, 중정의 특

성 중 외부로의 닫힘과 내부에서의 열림이 공통분모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립감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공용공간에 대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면서 타인과 함께 존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중요한 특성 중 전망과 은신처 이론을 바탕으로 건축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치유적 커뮤니티 공간을 제안한다.

첫째, 내·외부 사이의 시각적 경계는 해체하고 인식적 경계를 만들어 내·외부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폐쇄와 개방의 이분법적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계를 설정한 중정은 거주민들에게 인식적 경계를 강화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시선과 응시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유리재료의 투명성과 반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외피를 경계로 환원한다. 이러한 외피의 특성은 외부의 시선을 가리기도 하고 내부자의 시선을 바깥으로 투과시킴으로써 주체의 시선을 응시로 전환한다. 봄과 보여짐의 관계로서 시선과 응시는 전망과 은신처 이론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망이론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위험이라는 역설적 요소는 사회적 거리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요구되는 코로나-19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코로나-19 시대에 도시인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랙탈 패턴이 반영된 사바나 자연환경을 공용공간에 도입한다. 개별공간들이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경계는 도시와 느슨하게 결합된 방식을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제안들은 대도시와 비교해서 주거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법이 도시인구 분산화 정책과 연계될 때 개인주택이나 대도시의 고층아파트 방식으로 양분되어 있는 현 농촌지역의 주거방식에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김명선, 문정민,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주거지 보행공간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6), 2017.
2. 김봉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0(4), 2003.
3. 김용호, 묻지마 칼부림...임계치 넘어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로, 시사저널, 2020.11.7.
4. 김주미, 공간디자인에 적용된 프랙탈 특성의 인지생태론적 효과,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2), 2011.
5. 김준래, 코로나-19 사태는 공간 변화의 신호탄, 사이언스타임즈, 2020.6.5.
6. 김진모, 시선과 응시의 관계로 본 현대건축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7(5), 2008.
7. 목정호, 정재용,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집합주택 설계-블록형 집합주택의 중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36(2), 2016.

37) 김주미, 공간디자인에 적용된 프랙탈 특성의 인지생태론적 효과,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2), 2011, p.129.

38) 박정은, 이현수, 자연의 자기유사적 패턴 건축의 특성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3), 2018, p.54.

39) Buss D., 김교현, 권선중 역, 마음의 기원, 나노미디어, 서울, 2005, p.136.

8. 박정은, 이현수, 자연의 자기유사적 패턴 건축의 특성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3), 2018.
9. 손세관, 중정형 도시주택의 공간구조에 관한 문화적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11), 1994.
10. 이선정, 도시공동주택 공간과 인문학적 요소의 관계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사회문화적 관점으로의 파리 아파트 지속가능성 고찰,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3(4), 2018.
11. 이세영, 김수환, 소우 후지모토의 '사이건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60, 2017.
12. 이은환, 코로나-19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진단, 5(1), 2020.
13. 전명화 외 7명, 초고층 주거건물 내 공용공간의 특성 및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2), 2005.
14. 정나영, 정은영, 에드워드 호퍼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 나타난 시선과 응시의 교차에 관한 소고, 한국기초조형학회논문집, 17(6), 2016.
15. 정재현, 도시 맥락적 관점에서 분석한 레 오프폼 집합주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6), 2000.
16. 조주현, 개방과 폐쇄의 관점에서 본 파리의 블록형 도시주거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30, 2010.
17. 최순섭, 김광현, 현대건축의 타자적 경계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4), 2006.
18. 최원호, 무의식의 주체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17(9), 2014.
19. 한지형, 크리스티앙 드 포잠팍의 “제3세대 도시” 이론과 “열린 블록”의 체계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8), 2004.
20. 허미담, “화가 나 견딜 수 없다” ‘코로나 블루’ 이어 ‘코로나 레드’ 주의보, 아시아경제, 2020.9.15.
21. 황지현, 이현수, 심리 치유를 위한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 연구-경회루의 전망과 은신처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7(1), 2016.
22. Appleton J, Prospects and Refuges Re-Visited. Landscape Journal, 3(2), 1984.
23. Bueno-Notivol et al., Prevalence of depression during the COVID-19 outbreak: A meta-analysis of community-based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21(1), 2020.
24. Buss D., 마음의 기원, 김교현, 권선중 역, 서울: 나노미디어, 2005.
25. Ettman, C. K. et al., Prevalence of depression symptoms in US adult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AMA Network Open, 3(9), 2020.
26. Evans G. W., Wells N. M. and Moch A., Housing and mental health: A review of the evidence and a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critique. Journal of Social Issues, 59(3), 2003.
27. Hall E., 숨겨진 차원: 공간의 인류학, 최효선 역, 서울: 한길사, 2002.
28. Hillery G.,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955.
29. Kellert S. et al., Biophilic design: The theory, science and practice of bringing buildings to life. John Wiley & Sons, New Jersey, 2011.
30. Schraer R., Depression double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BBC News. Published 18 August, 2020.
31. Wilson E., 바이오필리아, 안소연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0.

접수일자 : 2021. 01. 08  
 초심완료일자 : 2021. 02. 15  
 재심(1차)완료일자 : 2021. 02. 19  
 게재확정일자 : 2021. 02. 22